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장미 농가서 영농도우미 활동 실시

✎ 김준혁(=호남) 기자 | ☎ 승인 2026.05.14 16:50

임직원 20여 명 참여...잡초 제거·장미 관리 지원
인력난 겪는 취약농가 지원...지역사회 상생 실천



▲KRC 영농도우미 행복충전활동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폴리뉴스 김준혁(=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가 농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찾아 영농 지원 활동을 펼쳤다.

농어촌공사 강진지사는 지난 14일 강진군 칠량면의 한 장미 화훼농가에서 'KRC 영농도우미 행복충전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KRC 영농도우미 활동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강진지사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잡초 제거와 장미 관리 등 영농작업 지원에 힘을 보탰다.

농가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걱정이 많았는데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근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영농철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농가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화훼농가의 경우 세심한 관리와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철욱 강진지사장은 "농촌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농가들이 인력 확보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농도우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준혁(=호남) 기자 junjun6816@naver.com